

제416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18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
2.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 1
2.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

(09시53분 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
2.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4분)

○위원장 송언석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등을 여러 방면으로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지적 및 당부 사항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예, 말씀하십시오.

○오기형 위원 여기에 의견들이 죽 있는데요, 아주 단순한 거지만 그래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다음 ‘다만’ 쪽 넘어가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 있음.

이게 ‘다만’이라는 게 마치 전체 다수가 이런 의견이 있고 소수가 이런 의견인 것처럼 해서, ‘다만’ 자는 뺏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석 얘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 양식으로 맞춰서 썼는데 ‘다만’이 적절하지 않다면 ‘반면’이라고 하세요, ‘반면’. 괜찮습니까?

○오기형 위원 예.

○위원장 송언석 그러면 그렇게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모처럼 여야가 합의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이렇게 채택하게 돼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 모두 특히 또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두 분 간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종합의견의 취지를 볼 때 아마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결과가 다수 의견이 크게 문제가 없고 적격하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고 적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적격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의견으로 볼 때 이게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적격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고 크게 이견이 없어서 채택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의견의 문장의 구성 자체가, 적격하다는 취지의 문장은 단 10줄이고 부적격하다는 취지가 17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앞뒤가 조금 모순되거나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합의 취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여야 두 분 간사님과 위원장님의 노력 그리고 또 민주당 위원님들의 협조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의결하고 나서는 이게 우리 국회 기록에, 속기록에는 남길 필요가 있어서 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국민의힘도 대승적으로 이렇게 양보했다는 점, 이 점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한 분 하셨으니까 저희도 한 분 하세요.

○위원장 송언석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위원** 이렇게 원만하게 딱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위원님, 적격 의견이 다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다수의 의견이 부적격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해 준 것이다, 그 정신을 잘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월요일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구자근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홍근 송언석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이인선 이종욱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황명선

○청가 위원(1인)

김영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전문위원 이정은